

유의 교육철학 반영하기 위해 고민할 때

분영어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수치 개선'에 힘썼지만 각 학과마다 영어강의가 전혀 필요치 않은 과목들까지 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면서 학생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도 마찬가지로 이 수치는 2006년의 1.64%에서 2014년에는 8.199%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이 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입학요건 중 한국어능력치를 'TOPIK 3급 이상'이라는 낮은 기준으로 적용해 외국인 학생들을 '질적 선별'이 아닌 '양적 확충'으로 끌어들이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TOPIK 3급'은 '공공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기초적 언어 수준'으로, 전문 학술용어를 소화해야 하는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엔 벅하다는 의견이 내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형편이다. 연세대의 경우 TOPIK 5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면 그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항목도 대학교 국제화 정책의 아픈 곳을 드러낸다. 2014년 기준으로 총 2,731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61%(1,689명)가 중국인 유학생으로 집계되며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에서 32위에 머무른 것이다. 이것이 우리학교의 국제화가 실상은 '중국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학내에서 꾸준히 들려오는 이유이자, 2014년도 국제화 지수 전국 4위 대학의 가려져 있는 실상이다.

무리한 재정 투입의 부작용, 그리고 구성원의 호소

대학평가 중심으로 맞춰져 온 우리 대학의 정책 기조는 결국 2014년에 접어들어 한 차례의 큰 역풍을 맞게 된다. 대학 재정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가운데, 그동안 재정을 투입해 견인해오던 각종 대학평가 지표들이 한꺼번에 하락한 것이다.

2014년은 대다수 행정부서의 예산이 전년 대비 많게는 90%에서 적게는 50%까지 삭감되었던 해다. 심지어 국제교류처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해외과연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비예산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학내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마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여파로 지난 2006년의 30위에서 2013년 7위까지 상승하던 '도서자료 구입비'는 2014년에 이르러 20위까지 하락한다. '제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도 마찬가지다. 2012년 2위, 2013년 5위를 차지했던 이 지표는 2014년에 15위로 푹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해외 과연 교환학생 비율'은 어떻게

2011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이 지표에서 우리학교는 2014년에 7위를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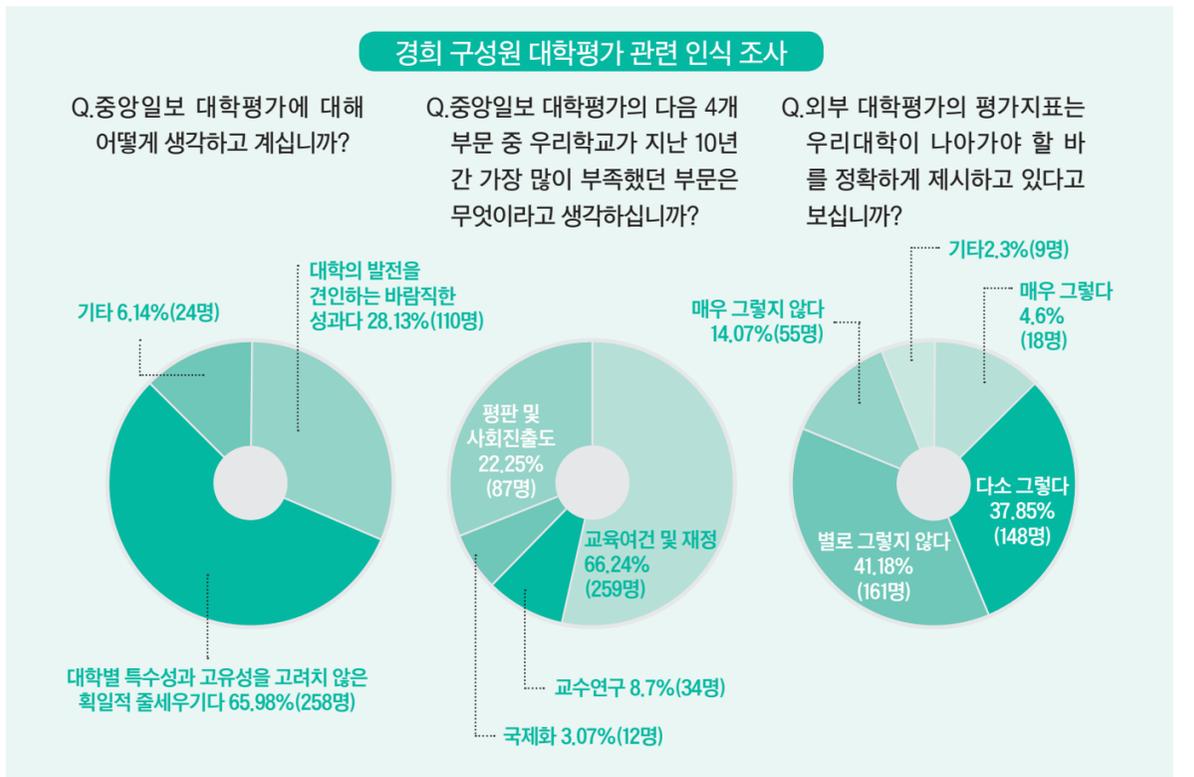
이런 결과는 결국 지표를 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미래적 안목'은 고사하고 당장의 학교 재정 상태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실' 보다는 순위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외연'에만 치중한 채 단기 사안들에 예산투자가 과잉으로 이뤄져, 결국 제대로 된 '효과'가 정착되기 전에 학교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대학의 이러한 '대학평가 몰입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우리신문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교수·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희 구성원 대학평가 관련 인식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자.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4개 부문 중 우리학교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부족했던 부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502명의 응답자 중 66.41%(259명)가 '교육여건 및 재정'을 꼽았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3년 우리신문이 진행했던 동일한 조사에서도 똑같이 도출됐던 응답이다. 당시 '우리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42명 중 53명(37.32%)이 '교육여건 및 재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은 2년 째 여전히 답보 상태인 셈이다.

한편 '대학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한 목소리로 '외연 보다는 내실'을 주문했다. 한 응답자는 "외부 평가보다는 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 인프라·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그 동안 일회성 대학평가에 몰입하다가 내실이 허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구성원은 "본질적인 것에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일회성 지표 상승을 위해 재원 투자를 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외부평가에서 SCI논문 실적 등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정작 연구여건은 열악하다'는 지적을 하는 응답자도 다수였다. 또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한 구성원은 "소비성(일회성) 지표 향상을 위한 예산의 과다투자로 재정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학평가 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해 "단기적인 성과 만 들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중앙일보 대학평가, 조선일보-QS아시아 대학평가, QS세계대학평가,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세계대학평가, THE세계대학평가 등 무수한 대학평가들이



무수한 대학평가에서 대학이 참고해야 할 것은 단지 '지표가 보여주는 현황' 뿐이다.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저마다 '대학은 어떠해야 한다'는 관점 하에 대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 대학은 그저 그 관점들만을 포착해서 장기적으로 해당 요소들을 튼튼하게 가꾸 가면 되는 것이다

난립하며 대학에 각종 정량적 지표들을 일률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이 현대 대학사회의 풍경이다. 하지만 이들이 들이대는 그 '정량적 지표'는 언제나 정답인 것인가?

'정답' 아닌 대학평가... 이제는 대학평가를 '평가' 해볼 때

그렇지 않다. 해외 대학평가 결과를 살펴보자. 올해 우리학교는 QS세계대학평가에서 295위(국내 8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THE 세계대학평가에서는 401-500위(국내 9위)를 기록했고,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세계대학평가에서는 515위(국내 10위)를 기록했다. 동일한 대상인 '2015년의 경희대학교'가 평가 주관사의 가중치 분포 추이에 따라 그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학평가에서의 '순위'라는 것은 가중치를 어디에 두고 집계하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변동되는 수치일 뿐, 결코 의미 있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대학평가 순위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입장을 대학주보가 수년 전부터 견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순위는 쓸모없다. 무수한 대학평가에서 대학이 참고해야 할 것은 단

단 '지표가 보여주는 현황' 뿐이다.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저마다 '대학은 어떠해야 한다'는 관점 하에 대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 대학은 그저 그 관점들만을 포착해서 장기적으로 해당 요소들을 튼튼하게 가꾸 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교수연구, 학생만족도, 졸업생의 사회진출도, 사회평판 등은 양적인 투자가 아니라 비전과 내실이 있는 학교 정책에 의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교육여건 및 재정문제 역시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탄탄히 구축할 때에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지표다.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을 우리대학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은 점차 사라지고 결국 우리대학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대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자화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학평가에 대처하는 우리학교의 지난 10년사는 결국, 제대로 된 학풍과 교육철학이 없이는 학교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는다. 이제 대학 측은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할 때다. 성장일변도를 지향해온 끝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2016학년도 전기 전액장학 신입생 모집(주간)

평화복지대학원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전원 장학금(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급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전액장학)
- 모집전공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대안정치거버넌스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11월 9일(월) ~ 11월 18일(수)
- 입시 일정

일 자	전형 내용
11월 18일(수) (우편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	서류마감
11월 25일(수)	필기시험
11월 30일(월)	1차 면접
12월 2일(수)	2차 면접
12월 11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10월 둘째 주(10.12~10.16)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캘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 제목	구분	일시	장소
세아상역 채용설명회(외국어 우수자 우대)	채용설명회	10.12(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동원그룹 채용설명회 및 면접 (외국어 구사능력 우수자 우대)	채용설명회	10.13(화) 13:00~15: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채용면담	10.13(화) 15: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KOTRA 채용설명회(채용형 인턴)	채용설명회	10.14(수) 15:00~17:00	청운관 B17호
한솔그룹 채용면담 (졸업 예정자인 경우 2016년 2월만 해당)	채용면담	10.14(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신청 시간 5분전까지 참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원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취업특강

특강 제목	일시	장소
조직이해와 인사지원서 작성요령(이정호 교수님)	10.13(화) 12:00~14:00	청운관 B17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전영민 교수님)	10.16(금) 17:30~19:30	청운관 B17호

-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팅 형태	일시	장소	신청방법
취업상담	분야별 컨설팅팀 4명	월 ~ 금 (각 컨설팅팀별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1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매뉴얼에서 신청 (컨설팅팀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On Line 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상담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상담 전, 후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총 2회,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 참조)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촌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년도 하반기 공채대비 모의면접

기업과 직무에 적합한 면접노하우를 제공하고, 성공면접을 위한 사전준비를 통해 2015년도 하반기 채용 최종합격률을 높인다.

- 대상자 : 2015 하반기 공채 서류 및 인적성 통과자 또는 2015 하반기 공채 지원자
- 내용 : 모의면접 특강, 인성면접, 토론면접
-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시간	장소	기타
모의면접 특강	2015. 10. 23(금)	17:30~18:30	생명과학대학 시청각실	특강자 : 노동섭 부처장 모의면접 신청자 필수참석
인성면접	2015. 10. 29(목)	12:30~17:00	다목적세미나실	드림존
토론면접	2015. 10. 30(금)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015. 10. 12(월) ~ 10. 22(목) 09:00~17:00
- 나. 제출서류
 - 모의면접 신청서(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 2015 하반기 공채 서류 및 인적성 합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부
- 다. 제출장소 :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 면접인원 : 80명(일당 인성면접 20명, 토론면접 20명)
 - *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2015 하반기 공채 서류 및 인적성 통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진행방법

시간	인성면접(다목적세미나실)	토론면접(드림존)	비고
1조	12:30~13:00	01(진행자 : 고희나 팀장)	- 팀당 최대 5명 - 면접실별 면접관 각 2명
	13:00~13:45	면접	
	14:00~14:45	면접	
2조	14:30~15:00	02(진행자 : 고희나 팀장)	
	15:00~15:45	면접	
	16:00~16:45	면접	

- 문의사항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 유의사항
-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10월 27일(화)요일 15:00 전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모의면접 당일 날 늦을 시에는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성의 있게 작성해주시십시오.
- 면접복장은 정장착용입니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